전북 신보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의회, 도덕성 · 전문성
업무 이해도 등 집중 검증
내일 결과보고 채택 여부 결정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지난 1월 19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재개정' 협약 이후 처음이며, 1월 3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전북 신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전북대와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984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 상임이사, 전무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 신보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 최형열 · 권요안 · 김대중 · 김동구 · 김희수 · 서난이 · 오은미 의원과 의장이 추천한 염영선 · 강동화 · 윤수봉 · 전용태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청문위원들은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 보증사고 관리 방안, 100억원 특례보증 기업 법정관리 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고금리 해소, 전북의 경제발전 전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완화, 투명한 인력 채용 및 조직 혁신 방안 등 업무능력과 함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전문성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 신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6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강제적 간음, 유형력 유무로 판단돼선 안돼"

박정희 도의원, '비동의 간음죄'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이 더는 유형력 유무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비동의 간음죄 제정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3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 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서 간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고 있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러한 부담 때문인지 실제 성폭행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가 조금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변화한 성관념에 부합하지 않은 형법은 국제사회 표준에도 맞지 않고, 실례로 2018년, UN이 한국 정부에 직접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라고 권고하기까지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한국 형법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2주 전 여가부는 형법 개정을 추진도 아닌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9시간 만에 번복했고, 법무부는 마치 '부처 위의 부처'인 것처럼 비동의 간음죄 개정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더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돼선 안 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정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민의 성적 결정권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간음죄 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과 관련 법률의 정비를 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와 의무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형법 개정 추진과 협조를 다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의 각 부처로 보내질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기후위기 앞에 중요한 것, 교육 통한 투자"

민주 김윤덕 의원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서
기후이변 대응 호소

새만금잼버리 소개하며
'그린잼버리' 실천 목표 제시

13~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3~14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 (UN/ 뉴욕) 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

김 의원은 "직면한 기후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으로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가뭄,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며 기후이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라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기반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지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각 국가의 대표들, 그리고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특히 '교육을 통한 기후이변 대응'이라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에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린잼버리를 통해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며 '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14일(현지시간)까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 뉴욕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1석의 기적 만들 것'

4 · 5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선대위 출범

오는 4월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를 낸 진보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전주곡, 1석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14일 진보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주 힐스턴클린턴 호텔에서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단, 선대위 고문을 비롯한 선대위 인사와 당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당 후보로 나선 강성희 예비후보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경제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직 검찰독재, 권력투쟁에만 몰두해 있다"며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1석의 기적,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4월5일 투표 혁명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변질시키는 철새정치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기득권 양당정치를 넘어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등장을 진보당 원내진출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생위기에도 오히려 60조 부자감세, 전기 가스난방비 폭탄 등 재벌 대기업만을 위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주을 재선거가 민생파탄 윤석열 심판의 최전선이다. 전당적 지원과 진보세력의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자리를 함께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강성희 후보는 진보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전체 민주노총 후보이다. 강성희 당선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깨뜨리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노동탄압을 꺾는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라며 "민주노총은 강성희 당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다. /뉴시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근거 마련

김정수 도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소화기 · 화재경보기 등 다문화가족도 무상 지원 가능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도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확대 근거를 담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이 많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으로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김정수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라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정읍 · 고창 수리시설개보수 올해 국비 162억 확보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 고창)이 14일 정읍 · 고창 지역 17개 지구(정읍: 왕신비 · 정잠 · 초강 · 정오 · 신화 · 청산지구, 고창: 미동 · 신림 · 아산 · 부안 · 고창 · 부안2 · 심원 · 오산 · 죽림 · 신고 · 수양지구)에 수리시설개보수 2023년 국가예산 162억원(총사업비 7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신규지구로 선정된 4개 지구는 정읍 청산지구(총사업비 40억원), 고창 수양지구(총사업비 40억원), 부안2지구(총사업비 9억원), 심원지구(총사업비 7억원) 등이며, 이들 지구에는 국비가 투입돼 노후 저수지, 양 · 배수장과 용배수로 등에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 의원은 올해 전북도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올해 예산으로 872억원(총사업비 4,839억원)이 최종 확보됐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내 6개지구 47억원(총사업비 278억원), 고창군 관내 11개지구 115억원(총사업비 433억원) 등 전북도내 96개 지구에 각종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농업기반 수리시설의 보수 · 보강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 시켜 사전재해 예방과 물 손실 최소화,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인 영농편익을 위한 신규 예산사업으로 정읍 관내 애당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총사업비 292억원), 백운3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158억원) 평령2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147억원), 고창 관내 수남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70억원) 등 4건 총사업비 66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의회 "시와 함께 지역현안 해결해 나갈 것"

정헌율 시장 무죄 판결 관련… "민선 8기 순항할 수 있게 돼"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14일 정헌율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오 의장은 "민선 8기가 오늘 무죄 판결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순항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경기침체로 시름하는 민생을 보듬는 일이 급선무인만큼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를 기조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시민행복과 익산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